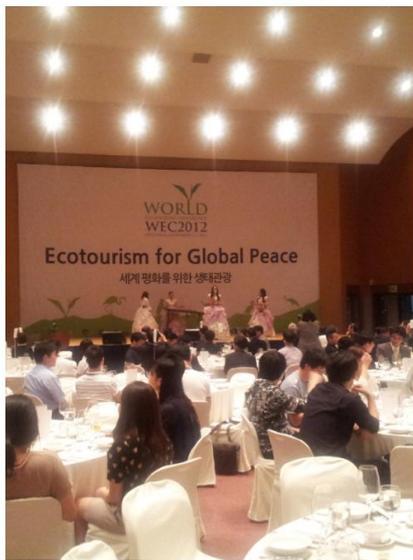




퓨전국악 그룹 “아리아”

힙합 뮤지션 스트릿디거

퓨전국악 그룹 ‘아리아 4인조’ 의 “우리가락 퓨전 국악보따리”



아리아의 첫번째 앨범 “Aria Grasce” [2011년 12월 1일 발매]

세상에 없던 음악!!!

'민요 창법은 가볍다'라는 상식을 깨고, 우리의 소리로 만들어진 세계를 향한 아리아의 음악,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였다.

수록곡은 <벚노래>, <사랑가>, <한숨은 바람 되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국악 편성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전통 민요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가벼운 단순, 발랄함을 탈피하여 월드뮤직으로 진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고급스럽게 재해석 편곡되었다.

타이틀곡 '한숨은 바람 되어'는 완벽히 국악기로 편성된 발라드 곡으로 특이하게도 현대적 멜로디이지만, 경기민요의 창법으로 가창되었음에도 어색함 없이 우리의 소리가 내는 애처로움이 더해져 듣는 이에게는 애절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곡으로 완성되었다. 가사는 옛 시조의 일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여 옛날 시조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더해져 한껏 고급스럽게 다가온다.





퓨전국악 그룹 **‘아리아 4인조’** 의
“우리가락 퓨전 국악보따리”

소리 (송 지현), 가야금 (정가나), 해금 (김세아), 대금 (이모아) 으로 이루어진 **여성 4인조** 퓨전국악그룹,
 아리아 밀려드는 서양음악으로 인해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소중한 국악을 알리는 알리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한 순수창작음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느낌의 음악! 가슴속 깊이 울려퍼지는 감동! 우리음악에 서양음악을 접목시킨
 ‘퓨전음악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통음악의 재해석과 더불어 친숙한 리듬과 선율로 현대적인
 국악을 만들어 대중들이 쉽게 우리악기와 우리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퓨전국악 그룹 ‘아리아 4인조’ 의
 “우리가락 퓨전 국악보따리”



아리아의 첫번째 앨범 “Aria Grasca” [2011년 12월 1일 발매]

세상에 없던 음악!!!

'민요 창법은 가볍다'라는 상식을 깨고, 우리의 소리로 만들어진 세계를 향한 아리아의 음악,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였다.

퓨전국악 그룹 **‘아리아 4인조’** 의
“우리가락 퓨전 국악보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리악기를 통해 국악의 소리와 가락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화려한 우리의 리듬선율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퓨전국악 그룹 아리아

